

#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는다

남조선에서 조선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을 계기로 그 무슨 《기념식》이라는 것이 벌어졌다.

《평화를 위한 기억》이라는 미명하에 《전투재연 관람》, 《특별전시회》 등을 벌여놓았을 때부터 내외의 강력한 비난과 규탄이 비발쳤지만 또다시 그 무슨 《위로연》, 《음악회》, 《추모제》 등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난 시기 조선전쟁에 참가했었다는 늑다리 《병사》들을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 해마다 벌려온 놀음이지만 북남관계가 진통을 겪고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광대극을 또다시 벌려놓는 것은 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정치적도발이고 새 전쟁을 추구는 무모한 망동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혈육들을 빼앗고 소중한 많은것을 잃게 하는 전쟁은 누구에게나 되풀이되어서는 안되는 아픔이라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가 전쟁에 대해 기억하는것은 슬픔과 회상에 대한 추억만이 아니라 더는 그러한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소원에 서이다.

지난 조선전쟁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전쟁은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외세의 야망이 불을 지핀 철저한 침략전쟁이며 우리 민족에게 아물수 없는 불행과 고통의 상처를 남긴 대살륙전, 민족말살전쟁이었다.

그 전쟁으로 하여 삼천리강토가 재더미로 변하고 수백만의 우리 민족이 희생되었으며 수많은 우리 혈육들이 생리멸을 강요당하였다.

민족성원모두의 가슴에 응어리진 그 아픔을 먼저 생각한다면 6.25를 저주해야 하

고 제2의 6.25가 다시는 없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범자, 살인귀들에게 《감사》를 조아리고 꿈에서도 몸서리칠 전쟁을 《기념》한다는것이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는것인가.

《평화》를 운운하면서 침략전쟁을 《기념》하고 침략자, 강점군을 《동맹》이라 개여우리면서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광고하는 그런 광대극은 지우상에서, 력사의 갈래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조선전쟁이 있는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

금도 이 땅에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인해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오늘 이 시각까지도 전쟁 《기념》놀음을 벌리며 대결광기를 부리는것은 민족의 평화지향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다.

남조선에서 《평화》의 간판밑에 전쟁을 고취하며 그 준비에 혈안이 되고있지만 력사는 툭툭히 말해주고 있다.

불을 지른자는 제가 지른 불에 타죽고야만한다는것을.

한광일

최근 남조선에서 까자호스만에 있는 반일의병대장 흥범도의 유해를 가져오려는 놀음이 벌어지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흥범도는 평양에서 태어나 북부조선일대와 중국, 로씨야 원동지역에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의병대장이었다.

흥범도의 유해가 그의 고향이고 조상들이 묻혀있으며 후손들이 있는 평양에 안치되어야 한다는것은 북과 남

은 물론 해외의 온 겨레가 한결같이 인정하고 주장하는 사실이다.

까자호스만정부도 지난 시기 공화국에 조선의 북과 남이 통일된 이후에 흥범도의 유해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범도유해를 기어이 남조선으로 옮기려는것은 조상전래의 풍습도, 국제관례도 무시한 반인륜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흥범도가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것은 외세가 없는 독립된 조선을 위해서였다. 이러한 흥범도가 자기의 유해를 외세가 주인행세를 하는 남조선땅에 옮긴다는것을 안다면 원통하여 무덤을 박차고 나와 사대배척세력들을 단죄할것이다.

흥범도유해송환문제로 공화국을 자극하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본사기자 김음철

최근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노는 행동이 재에는 정신이 없고 재밖에만 정신이 있다는 격언 그대로이다.

지금 남조선민생은 여러 달째 세계를 휩쓸고있는 《COVID-19》 확산사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런것으로 하여 민심은

# 조상전래의 풍습도 무시한 반인륜적 행위

## 민심에 역행하는 보수야당의 해체를 주장

남조선 인터넷 트집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대략적인 정황은 이러하다. 국민주권연대, 청년당이 19일 《미래통합당》 건물앞에서 민심에 역행하는 보수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언자들은 《미래통합당》이 조선반도를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으려 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말았다는 한편 부정선거의혹을 내뿜고 공수처설치를 방해하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미래통합당》을 해체해야만 민심에 역행하며 지나온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사사건건 발목잡는 미래통합당, 국민의 명령에 따라 지금 당장 해체하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랑독하였다.

성명은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제 처지를 모르고 랑설을 퍼뜨리며 사사건건 《국회》운영을 가로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국민의 의사를 계속 거부하는 적폐중의 적폐, 쓸모없는 《미래통합당》은 사라져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이 민생을 문한다는 《국회》에서 인민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제 밤그릇 쟁기기에 여념이 없기때문이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세살 난 아이 생투정 부리듯 《국회》에서 이미 결론된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자리를 저들에게 내어달라고 앙탈질을 부리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여당에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가고 《국정》과 관련한 책임을 지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한다.

지난 선거때 남조선인민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할듯 노족을 부리며 머리를 굴시키고 《한번만 기회를 달라.》며 닭동같은 눈물을 흘리고 동정심으로 민심을 구걸하던 《미래통합당》이다. 그러나 보수억제당의 추악한 정체를 속속들이 간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미래통합당》에 단호한 심판을 내

정계가 이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가망이 없다.

그도 그럴것이 《미래통합당》과 같은 보수세력들

리었다.

이런 《미래통합당》이 민심의 심판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새 《국회》가 열리자마자 또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리를 차지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리를 차지하고 동족대결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기를 쓰고 달라고하면서 민생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이리저리 한 구실로 거의나 다 무효화시키었다. 이런것으로 하여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지탄받게 되었고 지난 선거에서 민심은 그러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미래통합당》을 심판하였던 것이다.

일이 이쯤되었으면 《총선 결과를 겹쳐서 수용한다.》고 한 말 그대로 《미래통합

당》이 권력에 대한 모든 욕망을 내리놓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신경쓰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권력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미래통합당》은 저들이 언제 그런 말 했든가 실제 입을 뻐 다시고 다시금 20대 《국회》 시기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있다.

더러운 권력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처내뿜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는 마치 배대귀를 차지하려고 으름장대는 개를 방불케 하고있다.

살길을 찾아달라는 민심의 목소리에선 아랑곳하지 않고 제 리속만 차리려고 미친 승냥이마냥 덤벼드는 《미래통합당》에 의해 21대 《국회》는 초반부터 민생을 떠난 더러운 정쟁의 무대로 되고있다.

《미래통합당》과 같은 권력에 환장한 정치시정배들이 그 무슨 《일하는 국회》, 《의회민주주의》를 떠들고있는것이아말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과거 조선을 비비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일본어에 비할바없이 우월한 조선어를 없애지 않고서는 《야마모토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울수 없고 조선민족을 영구히 지배할수 없다고 타산하고 우리 겨레의 민족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민족어를 말살하기 위한 책동에 악랄하게 달라붙었다.

일제는 《황국신민화》, 《동화》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의 《혼연융합》을 집요하게 떠들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선총독부 학부국장였던 다케미 기이찌잔자는 《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상감정으로부터 언어, 풍속에서 이르기까지 혼연융합하는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선(일본과 조선)간에서 서로 량자 일체로 되어 동화되고 한가적으로 되어 융합되는것이 필요하다.

조선민족의 말과 글까지 빼앗으려고

기 위한 강력한 통치체계를 마련하고 조선어의 철저한 말살을 위해 조선총독부와 도청, 군청, 민사무소, 경찰서, 주재소, 파출소 등 행정, 경찰기관은 물론 헌병까지 총동원하여 조선어말살에 미처내뿜었다.

일제는 《판공서와 재판소 및 기타에서 쓰는 모든 공용어를 일본어로 한다.》고 공식선언하고 일본어는 조선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어》라고 거리낌없이

선포하였다.

일제는 수많은 악법들을 조작해냄으로써 조선어말살을 보다 철저히 실현하려고 날뛰었다.

일제는 1907년에는 《신문지법》을, 1909년에는 《출판법》을, 1910년에는 《출

학교규칙》, 1922년 2월에 개악한 제2차 《조선교육령》의 《중학교규정》, 1938년 3월에 개악한 제3차 《조선교육령》의 《소학교규정》 등의 악법들을 조작하여 조선의 모든 소학교, 중학교들에서 철저히 일본

육설과 기합, 벌금과 퇴학을 비롯하여 가혹한 민족적모욕과 천대를 받았으며 지어 혹독하게 매를 맞고 법적제재까지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28년 5월 일제경찰이 조선어교육을 요구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한 함흥고등보통학교(당시) 학생 100여명을 체포구금하고 그가운데서 15명을 재판에 넘긴 사실은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의 악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과 일본말사용의 강요로 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고유한 언어는 튼튼없는 수년의 시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의 민족성말살을 노린 일본의 조선어말살책동은 천추에 씻을수 없고 용서할수 없는것이다.

리미영



# 세계적인 《COVID-19》전파상황

보도들에 의하면 24일 24시현재 세계적으로 951만 6 078명이 《COVID-19》에 감염되고 그중 48만 3 905명이 사망하였다.

516만 3 261명이 완치되고 385만 8 912명이 치료를 받고있다.

다고 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주민들이 방역요구를 무시하고 망랑모이고 폐방한데 있다고 밝혔다.

그 수가 늘어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탈리아에서 23만 9 410명, 도이칠란드에서 19만 1 449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벨기에에서 6만 898명의 감염자와 9 722명의 사망자가 등록되었으며 네델란드와 포르투갈에서는 각각 4만 9 804명, 4만 104명의 감염자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23만 9 410명, 도이칠란드에서 19만 1 449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벨기에에서 6만 898명의 감염자와 9 722명의 사망자가 등록되었으며 네델란드와 포르투갈에서는 각각 4만 9 804명, 4만 104명의 감염자가 있다.

## ● 아프리카에서

## ●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33만 8 735명이 감염되고 8 888명이 사망하였다.

남아프리카에서 감염자수가 11만 1 796명에 달하였다. 에집트의 감염자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5만 9 561명, 2 450명에 이르렀다.

## ● 유럽에서

유럽 나라들에서 235만 6 910명이 감염되고 18만 9 074명이 목숨을 잃었다.

25일현재 로씨야에서 감염자수가 61만 3 994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8 605명이 사망하고 37만 5 164명이 완치되었다.

영국에서 24일현재 감염자수가 30만 6 862명, 사망자수는 4만 3 081명으로 늘어났다. 웨일즈보건의당국은 최근 3개의 식료품가공공장에서 약 330명의 종업원이 감염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 ● 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에서 286만 513명이 감염되고 15만 8 831명이 사망하였으며 남아메리카에서 그 수가 각각 192만 3 963명, 7만 5 991명에 달하였다.

브라질에서 감염자수는 119만 2 474명, 사망자수는 5만 3 874명에 이르렀다. 산빠울로주에서 피해가 심하다고 한다.

칠레에서는 25만 4 416명의 감염자와 4 731명의 사망자가 있다.

## ● 오세안주에서

오세안주에서 9 146명이 감염되고 125명이 사망하였다.

## ● 유라시아에서

유라시아에서 202만 6 090명이 감염되고 그중 5만 981명이 사망하였다.

중국에서 19명(베이징시 13명)이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폐렴환자로 새로 확진되었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감염자수는 1만 8 842명, 사망자수는 982명에 달하였다.

인디아에서는 47만 2 985명이 감염되고 1만 4 907명이 사망하였다.

이란에서 감염자수는 21만 2 501명, 사망자수는 9 996명으로 늘어났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수가 각각 12만 2 660명, 1 582명으로 증가하였다.

카라보르건설은 국내 감염자수가 9만 778명에 이르렀

## ● 남미에서

남미에서 202만 6 090명이 감염되고 그중 5만 981명이 사망하였다.

중국에서 19명(베이징시 13명)이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폐렴환자로 새로 확진되었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감염자수는 1만 8 842명, 사망자수는 982명에 달하였다.

인디아에서는 47만 2 985명이 감염되고 1만 4 907명이 사망하였다.

이란에서 감염자수는 21만 2 501명, 사망자수는 9 996명으로 늘어났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수가 각각 12만 2 660명, 1 582명으로 증가하였다.

카라보르건설은 국내 감염자수가 9만 778명에 이르렀

## ● 동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202만 6 090명이 감염되고 그중 5만 981명이 사망하였다.

중국에서 19명(베이징시 13명)이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폐렴환자로 새로 확진되었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감염자수는 1만 8 842명, 사망자수는 982명에 달하였다.

인디아에서는 47만 2 985명이 감염되고 1만 4 907명이 사망하였다.

이란에서 감염자수는 21만 2 501명, 사망자수는 9 996명으로 늘어났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수가 각각 12만 2 660명, 1 582명으로 증가하였다.

카라보르건설은 국내 감염자수가 9만 778명에 이르렀

#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의 급속한 전파에 우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이 24일 《COVID-19》가 세계적범위에서 계속 급속히 전파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이 대류행전염병이 발생한 후 첫 1개월동안에 1만명미만의 감염자가 확

인되었지만 최근 1개월 동안에는 거의 400만명의 감염자가 등록되었다고 하면서 1주일내에 세계적인 감염자수가 1 000만명에 달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아메리카지역 국장은 세계적

으로 감염자의 거의 절반이 아메리카지역에서 나올수 있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이미 450만명이상이 감염되고 그중 22만명이상이 사망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의 급속한 전파에 우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이 24일 《COVID-19》가 세계적범위에서 계속 급속히 전파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이 대류행전염병이 발생한 후 첫 1개월동안에 1만명미만의 감염자가 확

인되었지만 최근 1개월 동안에는 거의 400만명의 감염자가 등록되었다고 하면서 1주일내에 세계적인 감염자수가 1 000만명에 달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아메리카지역 국장은 세계적

으로 감염자의 거의 절반이 아메리카지역에서 나올수 있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이미 450만명이상이 감염되고 그중 22만명이상이 사망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본사기자